

71세 이상 고령 교인의 절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사역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제적인 노인의 연령 기준은 65세이다. 사실은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130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해 논한 이유는 100세 시대에 65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고령 교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분에서 은퇴한 고령 교인들(71세 이상)은 ‘교회 사역 참여에 대한 적극성’(50%)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능력을 갖고 있음’(40%)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의 교회 사역 기회 제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넘버즈〉 159호는 최근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고령교인’들을 이해하고 ‘노인목회’ 전략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료 출처 : 경기복지재단,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016.01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본 조사는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과 아드폰테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고령화시대에 점점 늘어나는 ‘고령 교인들의 신앙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교회가 고령교인 대상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 조사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와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 표본 규모	2,045명 (유효 표본) - 조사 주체 기관에 속해있는 26개 교회 참여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5월 18일 ~ 6월 28일
• 조사 주체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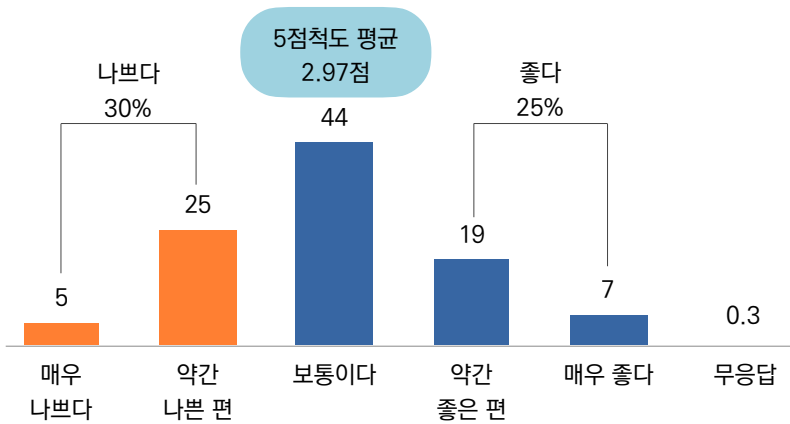
01

고령 교인 실태

① 건강 상태 : 10명 중 3명, '내 건강상태 나쁘다'!

- ▶ 65세 이상 고령 교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이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나쁘다(30%)'고 인식하는 경우가 '좋다(25%)'보다 다소 높았다.
- ▶ 5점 척도로 보면 평균 2.97점으로 약간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건강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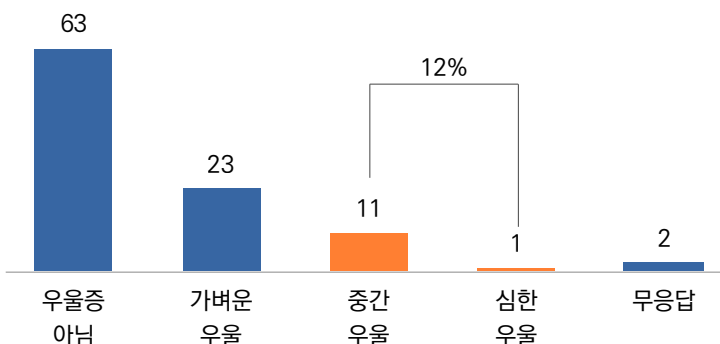
◎ 고령 교인 실태

② 우울 : 10명 중 1명 우울 증상 보여!

- ▶ 간단한 우울증 척도 9문항을 이용하여 '고령 교인' 대상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울감을 가진 교인(심한+중간 우울)은 전체 응답자의 12%로 나타났다.
- ▶ 우울감을 가진 고령 응답자는 적은 비율이나 우울은 자살 등 다른 파급효과가 크기에 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넘버즈」 120호 참고할 것)

<참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14%임.
(두 조사는 문항과 척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림] 우울 정도 (%)



[참조] 일반노인의 우울증상 비율**



14%

*우울증 척도 9개 문항을 제시(2주간 거의 매일 3점, 7~12일 2점, 2~6일 1점, 없음 0점)하여 합산점수를 다음 기준으로 '우울 정도' 측정함
(0~4점: 우울증 아님, 5~9점: 가벼운 우울, 10~19점: 중간정도의 우울, 20~27점: 심한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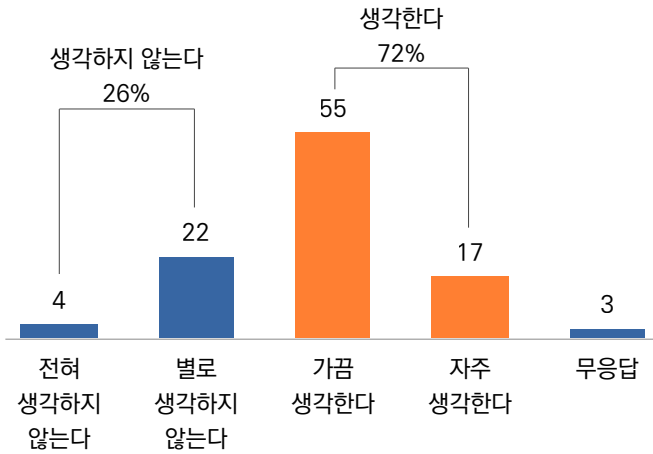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노인실태조사'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10,097명, 대면면접, 2020.09~11)

◎ 고령 교인 실태

③ 죽음 인식 : 72%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 ▶ 고령 교인은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을까?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응답이 72%로 '생각하지 않는다' 2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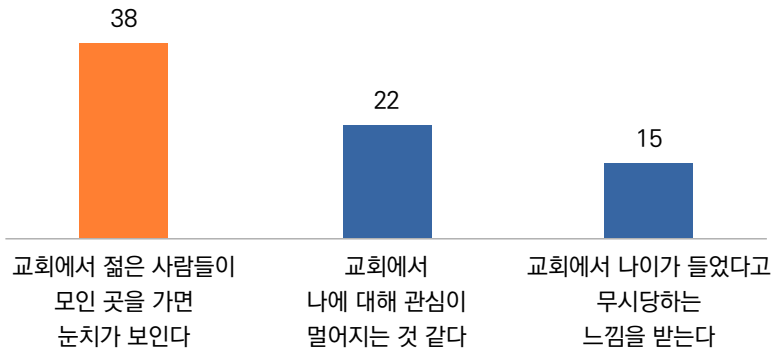


◎ 고령 교인 실태

④ 심리적 위축 : 40%가 '교회 내 젊은 사람 모인 곳을 가면 눈치보인다'

- ▶ 교회에서 고령 교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지만 고령 교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스스로 위축감을 느낀다고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응답했다.(38%)
- ▶ 또 고령 교인 10명 중 2명 안팎은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고 있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교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그림] 교회의 고령 교인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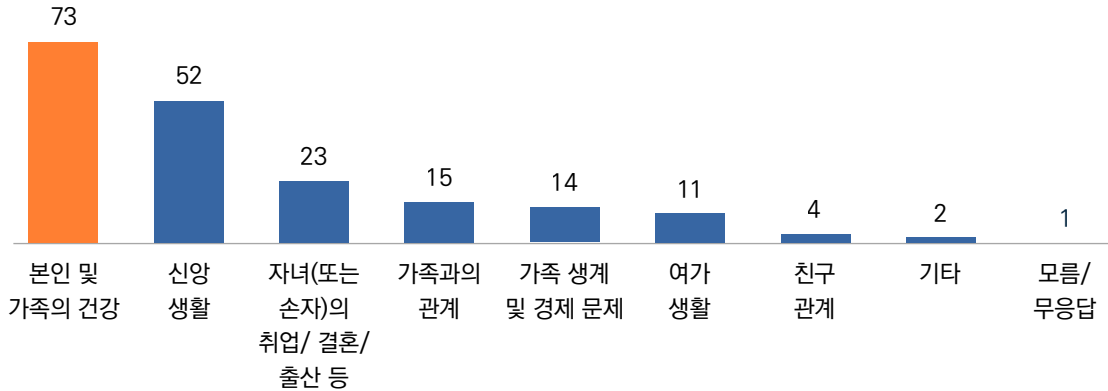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02

고령 교인의 관심사 : '건강(1위)'과 '신앙 생활(2위)'

- ▶ 고령 교인들의 최대 개인적 관심사는 '건강(73%)'과 '신앙생활(52%)'인 것으로 조사됐다.
- ▶ 나이가 들어 몸이 노쇠해짐에 따라 '건강'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요즘 개인적 관심사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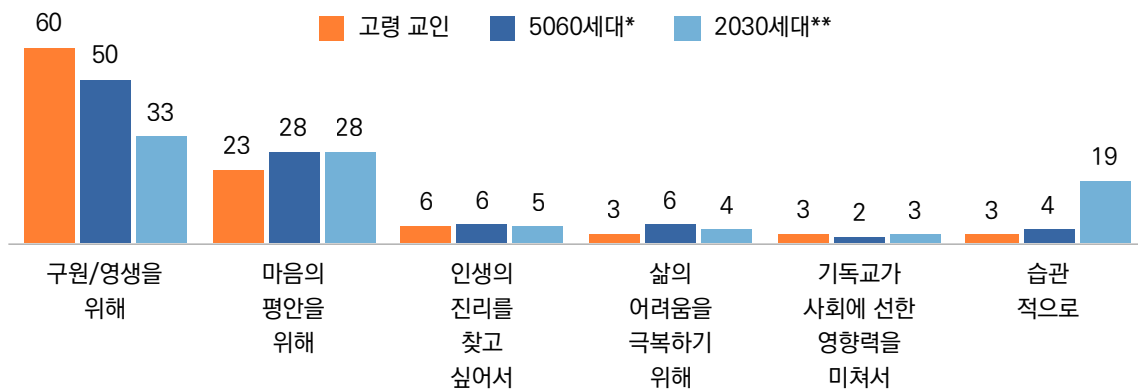


03

고령 교인, '구원/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비율 높아!

- ▶ 고령 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구원/영생을 위해서(60%)'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5060세대(50%)나 2030세대(33%)에 비해 '구원/영생'의 이유가 높은 것은 죽음에 가까운 시기를 맞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 ▶ 그 외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23%)',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6%)' 등의 순이었다.

[그림] 신앙 생활 이유 (세대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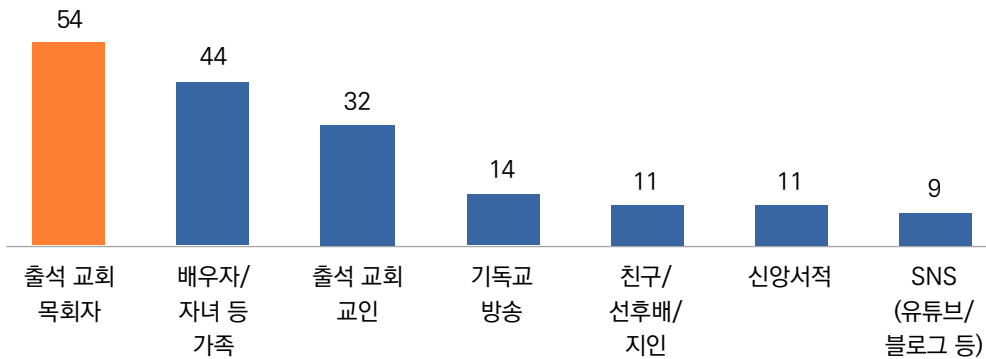
*50-60세대 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 오파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2021.12) (만 50-6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1.10.20.)

**20-30세대 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2021.01)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신앙생활에 영향 주는 요인, '목회자'의 영향이 가장 커...노령 성도에 대한 관심 필요!

- ▶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출석교회 목회자(54%)'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44%)이었다.
- ▶ '목회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에 목회자들은 더욱 노령층 성도 각각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위해 힘 쓸 필요가 있다.

[그림] 신앙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1+2 순위, 상위 7위, %)



04

고령 교인 목회 방향

① 은퇴 교인의 교회 사역 참여 기회 제공

- ▶ 직분을 은퇴한 71세 이상 고령 교인들의 절반(50%)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는 의견도 40%나 응답됐다.
- ▶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교회 인력 활용 차원에서 그리고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 동기부여 차원에서 고령자의 교회 사역 기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5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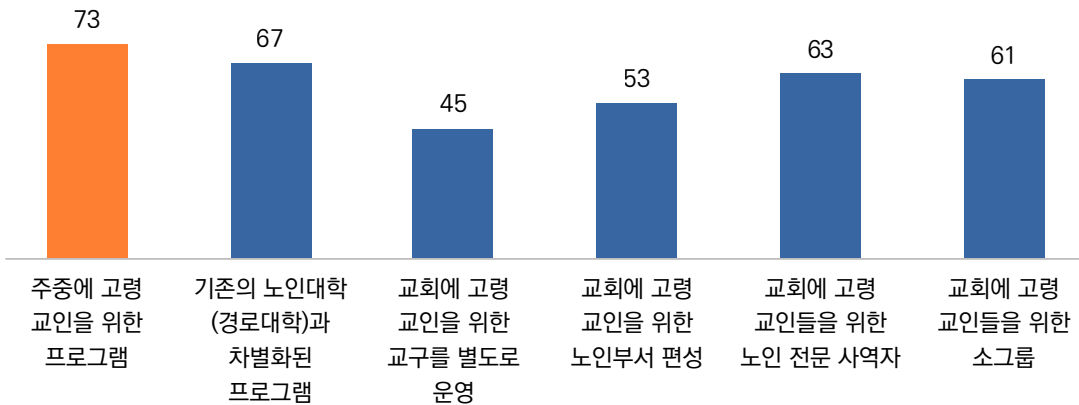
05

고령 교인 목회 방향

② 주중 고령 교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고령 교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6가지 정책 항목을 제시, 각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주중에 고령 교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로 가장 높아 여가 활용, 교제, 배움을 위한 활동 욕구를 드러냈다.
- ▶ 그 외에 '고령 교인을 위한 전문 사역자',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 등 제시된 모든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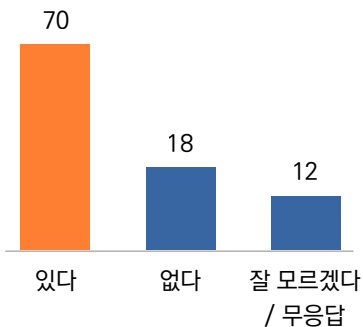
[그림]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 정책의 필요성 ('필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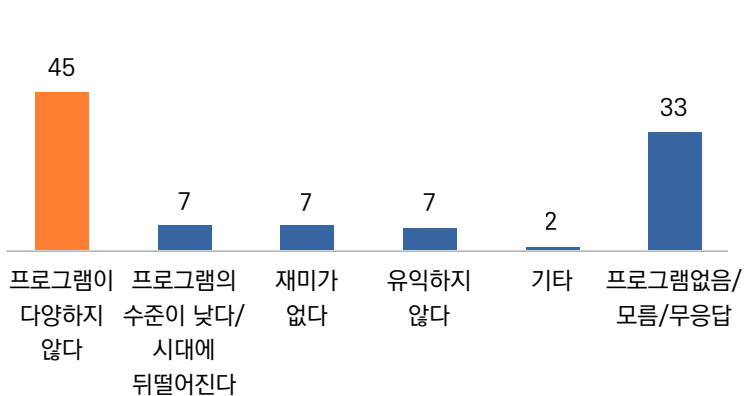
◎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 참여 의향, 70%! 그러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게 문제'

- ▶ 출석 교회에서 고령 교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70%가 '있다'고 응답해 높은 참여 의지와 관심을 보였다.
- ▶ 다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45%)'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노인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그림] 노인대학 성격의 고령 교인 프로그램 문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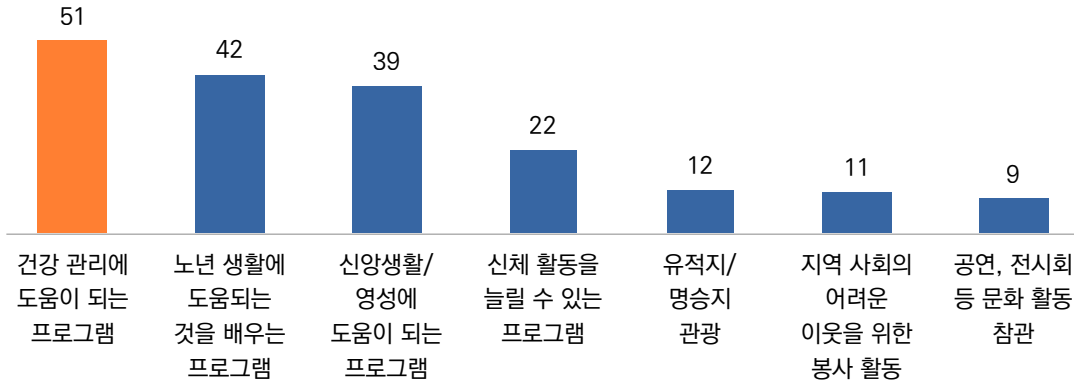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있다(매우+약간)', '없다(전혀+별로)' 비율임

◎ 고령 교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건강관리' 51%

- ▶ 그렇다면 '고령 교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년 생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42%, '신앙생활/영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39%, '신체활동 프로그램' 22% 등의 순으로 다양했다.

[그림] 고령 교인 프로그램 희망 내용 (1+2 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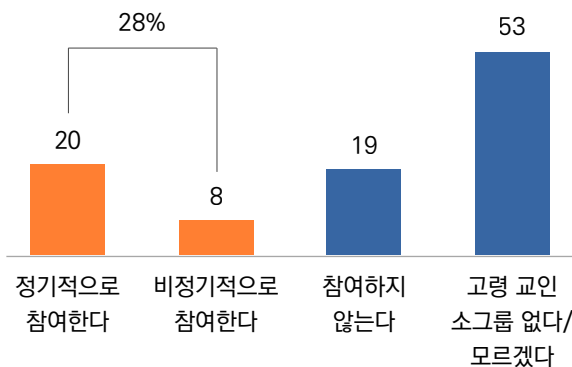
06

고령 교인 목회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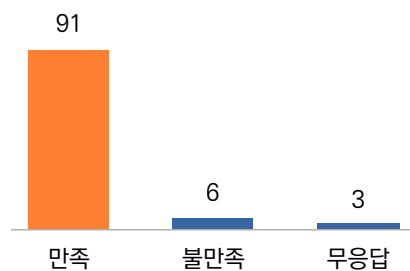
③ 소그룹

- ▶ 소속한 교회에서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을 운영한다는 응답은 47%로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고령 교인 기준으로 28%이며 그 중 정기적 참여자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 ▶ 그러나 일단 소그룹에 참여하면 만족도는 91%로 매우 높아, 소그룹이 고령 교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목회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고령 교인 소그룹 참여 여부 (%)



[그림] 고령 교인 소그룹 만족도* (%)



*4점 척도 질문으로 '만족(매우+약간)', '불만족(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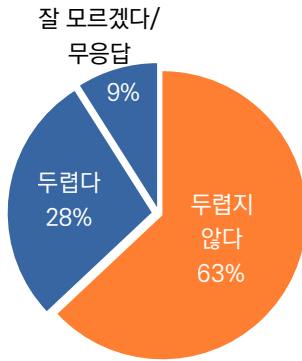
07

고령 교인 목회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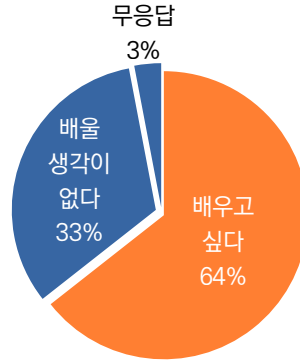
④ '죽음에 대한 강의/교육'

- ▶ 고령 교인들은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만(72%) 죽음이 두렵지 않다.(63%) 신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3명 중 2명(64%)이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다.
- ▶ 교회가 고령 교인을 위해 '죽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 및 교육(eg.연극, 가상죽음체험 등)을 개설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그림]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는 정도*



[그림] 죽음에 대한 강의/교육 받을 의향



*4점 척도 질문으로 '두렵다(매우+약간)', '두렵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한 국사회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이다. 전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일컫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다. 3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게 되어,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0년에는 OECD국가 가운데 28위였는데 2070년에는 46%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우리가 체감하듯이 사회보다 교회에서 더 심각하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29%인데 반해 개신교인은 33%까지 올라간다.(한국갤럽) 현장예배 참여자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39%로 고령화 정도가 더 심해진다. 성인 출석교인 3명 중 1명 이상이 고령 교인이 되는 셈이다.(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이제 고령 교인이 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면 행복해 지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노인이 맞는 첫 번째 변화는 건강의 변화이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자연 수명이 쇠하면서 몸의 이곳 저곳 기능이 떨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건강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를 찾아 다닌다. 둘째 변화는 사회적 변화이다. 우리나라 직장 정년 나이는 60세인데 은퇴는 개인의 사회적 존재 근거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큰 변화이다. 게다가 노후 준비를 해 놓지 못한 은퇴자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셋째는 심리적 변화이다. 사회적 은퇴가 되면 대개는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

어 이른바 노인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노화에 따른 뇌의 신경생물학적 변화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넷째는 죽음의 문제이다.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죽음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고령 교인들은 이러한 사회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몰두하게 된다.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즐거움을 맛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70세에 직분을 은퇴하는데 아무도 노인을 무시하지 않지만 노인 스스로가 은퇴 이후에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5쪽) 그리고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므로 교회 사역을 여전히 하고 싶어하지만 70세 은퇴를 하게 되면 교회 일에 관여할 수도 없게 봉사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7쪽)

이제 교회는 고령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의 방향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노년을 무의미하게 소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 고령 교인을 위해 노인대학(경로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8쪽) 노인들은 건강을 비롯해서 상당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좋은 것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높아진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 예전과 달라진 고령 교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고령 교인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고령 교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고 편하게 모시려고만 한다. 하지만 고령 교인들은 편하게 있는 '뒷방 늙은이'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로 살기를 원한다.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사역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주체적 존재로 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은퇴 연령을 지키면서도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는 인력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고령 교인이 행복해야 교회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어나는 고령 교인에 대한 목회적 방법을 각 교회가 세워야 할 때이다.

고령화시대, 교회 내 액티브시니어를 얼마나 발굴하는가가 미래 교회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